

40년 한결같은 실크사랑 ...“내가 판매한 건 믿음”

충장로 오래된 가게의 재발견

(3) 동아실크 40년째 운영 김중수 대표

원단 납품·한복·양장·이불·장신구 등 실크 관련 전 제품 판매
누에고치서 나온 ‘진짜’ 실크만 취급...중기부 ‘백년가게’ 선정도

※이 기사의 동영상은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고치에서 나온 실크만이 오로지 실크라고 생각합니다.”

충장로에서 40년간 ‘동아실크’를 운영해 온 김중수(69) 대표. 오랜 시간 실크와 함께 해온 만큼 실크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최근 광주시 동구 충장로 ‘동아실크’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내 특기는 40년 동안 실크 하나만 고집해온 것”이라며 “실크는 내 운명이다”고 말했다. 별고에서 나고 자란 그는 1968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외갓집이 있는 광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외갓집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외숙이 원단 전문점을 경영했기에 자연스럽게 직물을 접하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군대를 간 김 대표는 공군 전역 후 1980년 ‘동아실크’를 창업, 전남·북을 아우르는 호남지역특판장으로 발전시켰다.

“동아실크”는 한복원단을 비롯해 실크로 만든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크원단을 한복점, 양장점에 납품했지만, 지금은 주단, 한복, 혼수이불, 장신구 등 모든 것을 판매하는 실크전문전시장매장이 됐습니다. 특히 제와

이프가 실크 한복 디자인과 침구 분야를 책임지고 있죠.”

과거 1960~1980년대 충장로 부흥기 때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60~70년대 일상의복이었던 한복을 맞추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이후 양장으로 바뀔 때에도 사람들은 ‘동아실크’를 찾았다.

김 대표는 장사가 아닌 경영을 한다는 마음으로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흘러 섬유산업이 발전해 화학섬유가 널리 쓰일 때에도 그는 오로지 실크만 고집했다.

실크는 천연섬유로 만든 고급원단이기에 실크로 만든 옷을 입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설명한 김 대표는 실크는 얼굴을 매만지듯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며 함부로 다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들이 실크라고 하면 옷감만 생각하기 쉽지만, 누에에서 나오는 실크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크는 누에가 뽕잎을 먹고 만든 100%의 천연 섬유로 양장지, 한복지, 이불, 드레스, 넥타이, 스킨 등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 섬유로 만든 옷은 자연통풍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고 정전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밖에 실크파우더, 뽕나무차, 오디, 동충하초, 상항버섯 등 기능식품으로까지 변신하며, 실크를 나무와 접목시켜 실크 가구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모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죠.”

“동아실크”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에도 선정됐다. 지난해 머느리인 변주영 씨에게 사업부 명의를 넘겼다는 그는 앞으로 ‘동아실크’가 실크를 중심으로 한 복합글로벌매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장로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예전처럼 성황인 시대가 다시 오길 기대합니다. 또 이제는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합니다. 동아실크가 정말 백년 동안 운영되려면요, 아울러 이곳을 젊은 사람들이 찾도록 만들어 실크 생산 체제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향구에 불을 켜야 배가 오는 것처럼 항상 ‘동아실크’의 불을 켜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진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한국기자협회 가짜뉴스 배격 협약



광주시와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오른쪽)가 최근 ‘가짜뉴스 배격’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시민들의 권리 증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 등 광주시 관계자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최권일 광주전남기자협회장 등 기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사회검사와 국민 알권리라는 언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투명한 정보 공개, 정당한 취재·보도 지원,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오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자료 제공 등을 하

기로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시의 취재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기사로 대응하고, 팩트 체크를 위해 자료와 취재원의 확인을 거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기사 작성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배격키로 약속했다.

이용섭 시장은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및 보도, 국민들의 알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고 우리 사회에서 근거없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배격함으로써 신뢰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KIA 임기영, 치어리더 김맑음과 다음달 결혼

KIA타이거즈의 사이드암 임기영이 치어리더 김맑음과 결혼식을 올린다. 임기영은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 광주 드림 웨딩홀에서 화족을 밝힌다.

신부 김맑음은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KIA 타이거즈 응원단에서 활약한 치어리더 출신이다. 2018년 여름에는 ‘가즈아’라는 곡을 발표하며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했다.

올 시즌에는 SK와이브스 치어리더로 활약했다. 지인으로 지내던 두 사람은 연인으로 사랑을 키워오다가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광주에 신집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



‘이달의 전남대인’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팀



전남대학교가 최근 10월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신문방송학과 학생팀을 선정해 표창했다.

전남대 이학영 부총장은 “제5회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문방송학과 문규비·하유영·송정영 학생을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하고 최근 표창했다. 이들 학생팀은 전국 60개 대학 64개 팀이 참여한 영상공모전에서 ‘중소기업의 스테인레스 용기에 용기(勇氣)를 담아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제작, 대상과 상금 800만 원을 수상했다. /채희중 기자 chae@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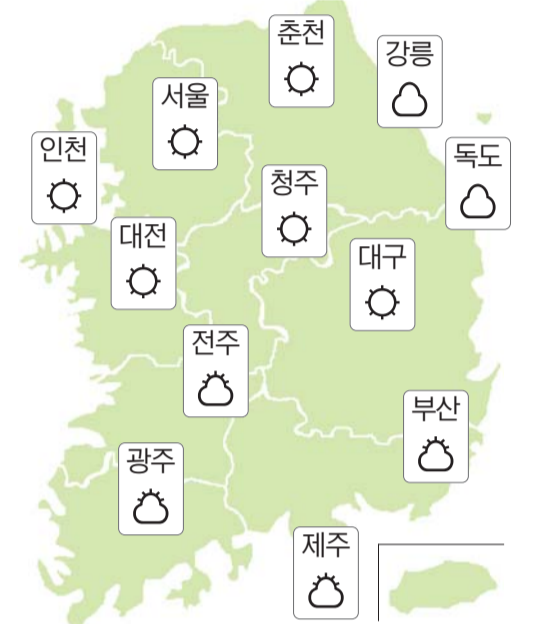
해돋이	07:08	달뜨기	08:01
해지기	17:26	달지기	18:22

흐린 하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8/22	보성	흐림	4/20
목포	흐림	9/18	순천	흐림	8/21
여수	구름많음	11/20	영광	구름많음	6/20
나주	흐림	4/21	진도	흐림	9/19
완도	흐림	10/19	전주	구름많음	7/20
구례	구름많음	5/21	군산	구름많음	7/19
강진	흐림	7/21	남원	구름많음	5/21
해남	흐림	6/21	흑산도	구름많음	13/17
장성	구름많음	5/21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5	
	면바다(남)	0.5~1.5	1.0~2.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1.0~1.5	1.0~1.5	
	면바다(동)	0.5~1.0	0.5~1.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41 20:16	02:22 15:04
여수	03:07 15:47	09:46 21:50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17(화)	18(수)	19(목)
☁	☁	☁
11/20	14/21	17/21
20(금)	21(토)	22(일)
☁	☁	☁
13/14	5/15	6/14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일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오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약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향당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레이너지토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

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